옥션 '올 어바웃 키덜트' 오픈 할인판매
옥션이 키덜트 전문관 '올 어바웃 키덜트'를 오픈, 26일까지 인기 키덜트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움직이는 장난감 '스타워즈 로그원 AT'를 28% 할인된 31만9000원에 선보인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 조종 가능한 '배트맨 배트모바일 텀블러 앱컨트롤'을 13% 할인된 125만원에 내놨다.

휠라 코트 디럭스 슈즈, 세정 멀티업 시리즈, 금강제화 헤리티지 스니커즈…

가치소비, 패션 취향을 저격하다

아이템 하나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
가성비·품질에 활용도와 가격까지
소비자 만족도 높인 패션제품 인기

'가치소비가 대세.'

패션업계에 '가치소비' 움직임이 몰아치고 있다.

합리적 가격으로 최대 만족도를 추구함이 주요 골자다. 가성비와 품질은 기본이요, 폭넓은 활용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하는 취향저격 제품이 대세다.

대표적으로 휠라 '코트 디럭스' 슈즈가 꼽힌다. 지난해 9월 5000족이 초도물량으로 생산된 뒤, 재차 재주문이 들어갔고 재입고될 때마다 매진사례를 빚는 등 최근 5개월 간 총 15만족이 판매됐다. 한달에 1만족 이상 판매되면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치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성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세련되고 간결한 콘셉트가 경기 불황 속 소비자들의 가치소비 취향과 잘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휠라 이태원 메가스토어에서 열린 '휠라 더블 디럭스 데이'에서 '코트 디럭스' 커플 운동화와 빅 로고 커플 티셔츠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패키지를 운동화 하나 가격(6만9000원)에 선착순 한정 판매하는 실속 혜택을 제공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패션업계는 요즘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 만족도를 추구하는 '가치소비' 움직임이 한창이다. 최근 휠라 이태원 메가스토어에서 열린 '휠라 더블 디럭스 데이'에 실속 있는 제품구매를 위해 모인 사람들. 사진제공 | 휠라

세정은 날씨·계절은 물론 취향 및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각기 다른 연출이 가능한 '멀티업 시리즈'를 내놓았다. 하나의 제품으로 2가지 이상의 스타일을 연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트렌디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다. 아우터와 베스트를 따로 또 같이 코디할 수 있는 '브루노바피'의 간절기 트렌치 코트, 평일 오피스룩·주말 아웃도어룩이 동시에 가능한 '인디안'의 '재킷 변형 사파리' 등이 그 예다.

금강제화 '헤리티지'가 올해 봄·여름 시즌 신상품으로 신사화 대신 스니커즈 컬렉션을 선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장에는 구두,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구분해 신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와 스포츠를 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가치소비 트렌드에서 파생됐다.

금강제화 측은 "고급 수제화 브랜드 '헤리티지'가 캐주얼 느낌의 스니커즈를 출시한 것은 이례적 시도"라며 "한정 타깃층에만 어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출시 한달 만에 전체 물량의 20%가 판매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하루 최고매출 52억…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핫하다 핫해'

하루 평균 38억…개점 9개월 만에 흑자

이슈

신세계면세점(대표 손영식) 명동점이 개점 9개월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2일 명동점 1월 매출이 750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신규 사업자 중에는 가장 빠른 기간에 달성한 흑자다. 신세계면세점은 2월 들어서도 하루 최고 매출이 52억원을 기록하는 등 일 평균 매출이 38억원으로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하반기 불가리, 반클리프아펠, 티파니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입점하고, 지드래곤, 전지현 등 한류스타를 앞세운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다국적 개별관광객을 겨냥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쳐온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들어 버버리와 토즈가 영업을 시작하고, 3월에는 끌로에, 셀린느 등의 브랜드가 잇달아 문을 열 예정이다. 올 상반기 목표인 일 평균 매출 4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연간 매출 역시 신규 사업자 중 가장 빨리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매장과 실외공간에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을 유치하고, 국내 최초 전통문화 편집숍 '신세계 기프트샵'과 라인, 카카오 등 다양한 한류 캐릭터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여행경험을 제공하는 관광명소로서 차별화를 시도해 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포켓몬고 성지? 롯데리아에 있잖아

외식업계 최초 '포켓몬 고'와 파트너십

㈜롯데리아가 포켓몬고 유저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롯데리아는 22일 지난달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와 외식업계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리아가 운영하는 7개 브랜드(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TGI프라이데이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팝, 빌라드샬롯, 더 푸드 하우스) 매장에서 포켓몬 고를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7개 브랜드 2709개 매장 중 2459개 매장은 포켓몬을 잡을 때 필요한 '몬스터볼'과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포켓스톱'으로 지정, 250개 매장은 게임 사용간의 대결 장소인 '체육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롯데리아는 '포켓몬 고'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K텔레콤이 27일 MWC 2017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로봇을 공개한다. 모델이 AI 로봇들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SKT, 음성·영상 인식 인공지능 로봇 공개

27일 MWC서 탁상형 AI기기 선봬

SK텔레콤은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로봇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성 인식 기술에 영상 인식 기술을 더한 탁상형 기기로 카메라 및 화면이 장착된 헤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가 기기를 부르면 헤드 화면 부분이 이용자 방향으로 회전한 뒤 계속 이용자를 따라다닌다. 정보 전달은 물론 감성적 표현도 가능하다. 손동작 인식 기능도 적용해 통화 중 손바닥을 내밀어 '그만'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얼굴 인지 기반의 개인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 밖에도 유아용 토이봇 시제품과 함께 인공지능 '누구'와 연동한 펫봇과 커머스봇 등 외부 개발사의 AI로봇 시제품 2종도 함께 선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헬로베트남쌀국수, 가격대비 퀄리티 좋아요"

보장된 맛·품질에 메뉴 다양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주목

가성비를 내세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창업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헬로베트남쌀국수'. 3900원에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듯한 맛있는 쌀국수 한 그릇을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이다.

가격대비 퀄리티 높은 맛과 품질은 성공원동력이다. 싱싱한 야채와 든든한 양지고기를 듬뿍 올려 완성한 쌀국수는 간단하지만 정성이 깃든 푸짐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이다. 이밖에도 볶음면, 볶음밥, 짜조, 라이스앤누들 등 다양한 메뉴와 뛰어난 퀄리티로 승부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품질 좋은 쌀국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본사의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이다. 본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초보자도 3분이면 조리할 수 있는 간편한 조리시스템을 구축해 주방전문 인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짧은 조리시간으로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 작은 매장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양형모 기자

헬로베트남쌀국수 구로점